

자연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 곳, 대전 태평동 동양파라곤

# 행복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보금자리







1 유등천변을 따라 들어선 태평동 동양파라곤은 지역 내에서 명품 아파트로 통한다. 2 파라곤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입주인 이성례 씨.



대전 태평동 동양파라곤 304동 2203호에 거주하는 이성례 씨. 그녀는 동양파라곤에 입주한 이후 이 아파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새 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도 함께 누리고 있다며 행복해하는 그녀, 이성례 씨가 말하는 동양파라곤에서의 웰빙 라이프를 들여다보자. 글 이성례 (대전 태평동 동양파라곤 입주인)

“엄마! 저기 하얀새 좀 봐~ 물고기 먹어요.~~”  
 “엄마! 어제는 꽃이 없었는데 오늘은 빨간꽃이 피었네?”

요즘 네 살, 여섯 살 난 두 딸을 데리고 아파트 주위를 산책하며 아이들로부터 듣는 말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자연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저희 집은 일부러 공원이며 식물원을 따로 가지 않는답니다. 아파트 주위가 갖가지 꽃과 식물, 새들이 있는 천연 자연 공원이거든요.

대체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대전 태평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아파트랍니다.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은 궁전처럼 웅장한 아파트라고 하면 '동양파라곤'이라고 떠올릴 정도로 밤에 보면 화려한 경관 조명으로 그 위엄한 자태가 제법 근사하답니다. 제가 들기론 충청권에서 경관 조명이 있는 아파트로 동양파라곤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죠. 사람들이 아파트 외관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파트 곳곳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 아파트는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유등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일년 내내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면서 살지요. 가끔 가사와 욕이에 지칠 때 차 한잔 마시며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끝없이 이어진 유등천을 가르며 날고 있는 백로의 여유로움과 시원한 바람에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하답니다. 그리고 단지 옆에 공원이 있어서 휴일엔 가족과 함께 김밥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가서 먹고 유등천변을 거닐



1 파라곤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는 단지 내 벤치. 2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유등천변에 자리 잡은 파라곤. 3 휴식을 취하는 입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 좋은 쉼터.

다 보면 소풍 온 기분일까요? 그래서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자랑도 할 겸, 오붓한 시간도 보낼 겸해서 꼭 유등천과 공원에 데리고 간답니다. 우리 집의 명소랄까요?

또한 이곳 파라곤의 탑상형 구조에서만 볼 수 있는 3면의 야경 또한 스카이라운지 못지않게 좋아 부부의 금슬을 다지기에 제격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발코니에 부부 테이블을 따로 놓지 않았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바깥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낮에는 혼자 명상하며 차 한잔, 밤에는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술 한잔, 이쯤에서 다들 파라곤의 매력에 빠져들고 계시겠죠?

그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제 몸을 돌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아마 주부들은 그런 제 맘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다이어트에 대한 희망이 보였답니다. 새벽에 우리 꼬마들이 잠자고 있을 때는 유등천변에 있는 조깅 코스를 따라 한 시간 정도 걸어요. 저녁때는 남편과 하루씩 번갈아가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센터 내에 운동기구와 사우나 시설이 최첨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웃 아파트에서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 덕에 석 달 만에 4kg이나 감량한 거 있죠? 남편도 유등천변에서 조깅과 운동을 하느라 몸이 좋아졌다며 근육 자랑을 한답니다.

**전문 경비업체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가족의 안전 지켜** 태평동 파라곤 아파트 안에는 이런 최첨단 스포츠센터 말고도 입주민을 위한 편리한 공간이 많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며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지요. 저도 딸만 둘인데 공부하느라 밤에 어두운 길을 다니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코앞이 독서실이니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할 때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두 꼬마가 자주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이랍니다. 제가 이곳 파라곤에 이사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요.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재미있는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입니다.

모든 세대의 창문에서 볼 수 있는 놀이터도 동양건설 측에 감사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놀이터 바닥도 모래가 아닌 폭신한 매트가 깔려 있어서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져도 아프단 소리를 앓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놀이터 매트를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놀이터 흙에 기생충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흙을 만지고 놀다가 바로 손을 닦지 않으면 감염된다는데 그런 걱정 전혀 없답니다.





1 분수대와 함께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수변 공간. 2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3 입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조깅 코스.



두 아이들만 놀이터에 보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든든하게 파라곤 입주민을 지켜주고 계시는 '에스텍' 관계자 분들 때문이죠. 저희 아파트는 경비아저씨 대신 경비업체가 아파트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만나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해 주시고, 혹시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고 갈라치면 바로 달려와 문 앞까지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길 건너에 있는 초등학교 등 학교 시간에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교통안전을 신경 써 주시니 이보다 더 믿음직 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입주이래 아파트 내에 도난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이분들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과 친숙함이 느껴지는 커뮤니티** 이젠 파라곤의 매력에 빠지다 못해 헤어나기 힘들시겠죠? 하지만 저의 파라곤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위 자연 환경이며 부대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아파트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전부 입주민에게 달려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곳 파라곤 주민들의 단합과 자발성은 저도 이사 와서 가장 놀란 부분입니다. 눈이 많이 온 아침이면 누구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빗자루를 들고 나와 눈을 치워주고, 가물어서 단지 내에 있는 꽃들이 축 처져 있을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루까지 들고 나와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또 타 아파트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녀회와 입주민대표위원회도 저희 아파트의 큰 자랑거리고요.

지금 저는 차를 마시며 유등천을 내려다봅니다. 주말이면 푸른 잔디밭에서 아빠와 함께 신나게 공놀이도 하고 제가 만들어준 꽃 목걸이, 꽃 반지를 끼며 까르르 웃고 있는 두 공주님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요. 행복은 이런 게 아닐까요? 저 멀리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행복이 있습니다. 파라곤이 제 행복을, 아니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었네요.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 모든 소비생활의 주체는 '여성' 이라고 하더군요. 자동차나 가전제품, 심지어 아파트까지도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야 매출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태평동의 파라곤 아파트는 여성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최고의 아파트가 아닌가 싶네요.

며칠 전 쇼핑 갔다가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 점원에게 동양파라곤에 산다고 하니 "좋은 데 사시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던지. '동양파라곤' 이 대전에서 명품 아파트로 통하더라고요. 문득 냉장고 CF에서 유행했던 카피가 생각나네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저는 그 카피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답니다. '파라곤이라서 행복해요' ☺